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년 2길 6번지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선제적 격상 “당장 막지 못하면 큰 피해”

김승수 시장, 담화문 발표

최근 3일동안 신규확진자 20명 초과 등 고려해 결정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방역 강화
내일부터 9월 9일까지

전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일 2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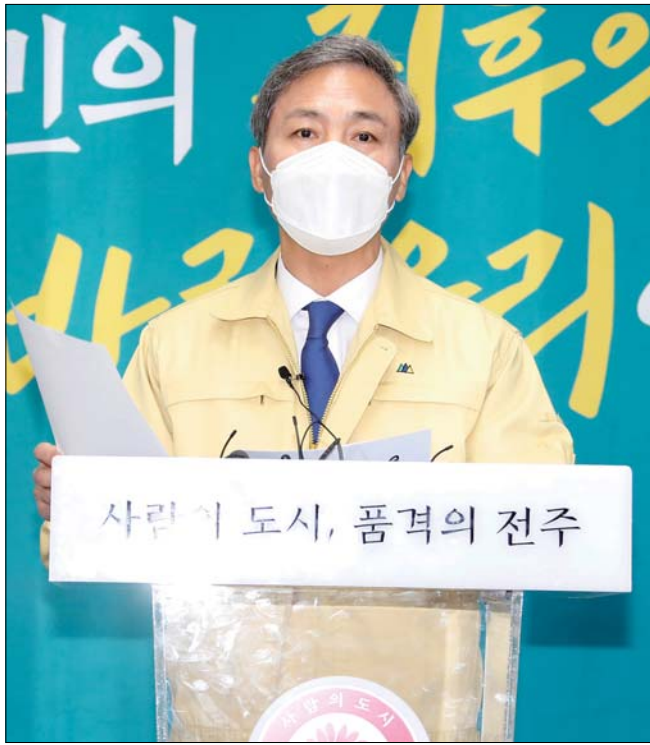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인 만큼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지인·가족 등으로 전파되면서 최근 일주일(18~24일) 동안 총 119명, 일일 최대 28명(23일)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을 초과(22일 21명, 23일 28명, 24일 24명)하고,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 선별검사 건수도 급증한 점 등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인 이하로 제한되는 등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단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기존처럼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임 경우에는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주점과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 홀덤펍, 홀덤펍게임장 등은 집합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마트와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종교집회가 허용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되지만 기타 행사나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도 임시 폐쇄된다. 다만 필수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은 폐쇄가 되지 않는 대신 인원 제한 등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발맞춰 6개반 94개소 18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집합 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들어 가족 중 단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온가족이 모두 감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23일

까지 전주지역에서 신규 확진된 235명 중 절반 이상인 138명(58.7%)이 가족·지인간 전파로 인해 확진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전주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등교 가능 학교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284개교 중 226개교가 등교 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하루하루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힘겨운 길에서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주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3일에는 역대 하루 최대인 363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등 접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현재 총 45개 역학조사팀(188명)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국가의 미래, 지방분권 여부에 달려있다”

송하진 도지사, '2022 대선·거버넌스 자치분권 비전' 주제로 컨퍼런스 참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이 25일 개최된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웹세미나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위원회, 서울시립대, 지방자치학회, 거버넌스센터 등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2022 대선과 거버넌스 자치분권 비전'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에 패널로 참석했다.

특별세션에는 송하진 회장을 비롯해 김승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황병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여, 평소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송하진 회장은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자치 제도개선과제와 지방분권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 등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이 25일 개최된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발전하는 나 여부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 중이며,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마련해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유호성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해외사업 국제입찰 수주 '꽤 거'

LX공사 '아르메니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표준화 컨설팅'

내달 1일부터 18개월동안... 공간정보 시스템 전문가 등 투입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입찰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공간정보업체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LX공사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한 6억원 규모의 '아르메니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표준화 컨설팅 사업'의 수주 계약 체결에 성공, 다음달 1일부터 18개월 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LX공사는 다자개발은행(MDB) 중 하나인 ADB에서 발주한 사업을 국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정부부처 간 통합적이고 호환이 가능한 표준체계 수립과 공간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표준과 공간정보 시스템 전문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LX공사의 이번 사업 수주로 향후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을 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80년 전통과 경험,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토지분야 공공

기관인 국립지리원(IGN)을 상대로 LX공사와 민간 기업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국제 경쟁 입찰에서 수주한 것으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이런 특별한 시기에 공간정보사업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ADB와 세계은행 등 다양한 재원에 기반한 사업을 토대로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에 LX공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현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에서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며 해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윤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